전북대, 학생 서비스 만족도 3년 연속 1위

한국표준협회 서비스품질지수평가 실시 이래 6번째 선두 차지… 혁신 교육 플랫폼 구축 · 교육 서비스 차별화 우수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2021 서비스품질지수 평가' 결과 지방 국립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대는 이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이 평가는 각 대학별 1학년을 제외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 대한 만족도를 일대 일 개별면접과 인터넷 패널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비스 결과 품질과 서비스 상호작용, 서비스 환경, 사회적 품질 등으로 나눠 정확성과 전문성, 진정성, 친절성, 적극성, 이용편리성, 외형성, 사회적 가치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했다.

전북대는 평균 82.3점으로 지방 국립대 평균 78.8점보다 높게 받았다.

이에 한국표준협회는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1 KS-SQI 인증 수여식'을 갖고, 각 부문 수상 기관에 인증패를 수여했다. 전북대는 이날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상 인증패를 받았다.

전북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등록금은 적은 반면 학생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기 때문이다.

전북대는 '입학에서 졸업까지'라는 학생 교육 시스템을 기치로 내걸고 우수 신입생 장학제도를 통한 창의인재를 선발해 우수학생 기숙형 프로그램 등 독창적 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해 창의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우수인재 유치에서부터 잘 가르치는 혁신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대학이 학생의 입학부터 학부과정, 대학원 진학, 취업까지 총괄해 지원하고 성과를 관리해주는 'HS(Honor Student) 시스템' 운영을 통해 혁신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갖췄고, 잠재력이 큰 동남아 대학을 중심으로 '아시아 연합대학'(AUEA)를 통해 학생 교육의 지평을 세계로 넓히고 있다.

이같은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1,700만원이 넘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우수성을 대변하고 있다.

김동원 총장은 "전북대는 10개 국가거점국립대 간 학사교류를 주도하는 등 대학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며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우수 교육 시스템과 교육,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세계를 이끌어 갈 글로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한국표준협회는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1 KS-SQI 인증 수여식'을 갖고, 각 부문 수상 기관에 인증패를 수여했다. 전북대는 이날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상 인증패를 받았다.

전주비전대학교는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3일 거제 삼성중공업을 방문, 현장학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대, 홈랜드솔루션과 폐태양광 재활용 공동연구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연구소기업인 ㈜홈랜드솔루션과 폐태양광 재활용 관련 장치 제작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최근 전북대 부설 에너지·자원개발연구소 송영수 소장과 ㈜홈랜드솔루션 전덕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오는 2023년부터 시작되는 '사용후 태양광 모듈 EPR제도'에 대비해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원 교류, 연구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공유체계 강화 등을 통해 태양열 패널 재이용?재활용에 관련된 장치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한편 ㈜홈랜드솔루션은 전북대 기술지주회사 1호 기업으로, 태양광패널 진단, 폐패널 재이용·재활용, 패널유지보수, 장비제작판매 및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는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3일 거제 삼성중공업을 방문, 현장학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주비전대, 유학생 삼성중공업 현장학습

전주비전대학교(총장대행 문용규)는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3일 거제 삼성중공업을 방문, 현장학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학습에는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들과 내년 3월 진학 예정인 어학연수생 등 50명으로, 삼성중공업 투어 및 소개, 취업 선배와의 미팅과 Q&A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는 현장학습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유학생들에게 졸업 후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비전을 심어주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주비전대학교는 최근 재학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을 위해 한국어 교육, 전공 교육, 취업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에는 현재 9개국 300여 명의 유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직업계고 기능인재 한마당

전북교육청, 전주공고 창조관 앞마당서… 재능마당 등 구성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등 29교 참여… 오늘부터 이틀간

전북지역 직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특색사업을 한 자리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직업계고 기능인재 한마당'을 4~5일 이틀간 전주공업고등학교 창조관 앞마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업계고 기능인재 한마당은 올해 7회째로 직업계고의 학교교육과정 및 특색사업을 홍보하고,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주요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직업계고 교육활동 체험부스 운영 ▲특성화고 진로상담 ▲재능마당 ▲가을음악회 등이 운영된다.

우선 직업계고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홍보·전시하는 교육활동 체험부스 운영에는 29개교가 참여한다.

모형항공기 만들기, 드론축구, 특허-3D프린터, 중장비VR 조종, 압화체험, 목공예, 뚱카롱만들기, 네일아트·메이크업 등 전공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수업결과 전시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도내 중학교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체험활동과 진학상담도 제공한다.

학교별 부스마다 담당교사가 직접 참여해 진로상담과 입학 안내 등을 통해 적성에 맞는 계열 및 학교 선택에 도움을 준다.

또 직업계고 학생들의 끼를 마음껏 발휘하는 공연 무대도 이틀간 이어진다.

4일에는 관악·댄스·농악·힙합·난타 등의 공연이, 5일에도 관악과 그룹사운드 공연을 통해 행사장을 찾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기능인재 한마당은 도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및 특색사업 결과 발표를 통해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직업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라면서 "전공별 직업체험을 통해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행사장 입장 전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격리공간 운영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부스 운영도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고3 학생 및 교사가 중심이 되도록 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덕암고, 12일 2022학년도 입학설명회 개최

덕암고등학교(교장 김판윤)는 오는 12일 오후 시청각실에서 중3 학생·학부모를 위한 2022학년도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학설명회는 대입 제도 안내를 통해 학부모들의 고교 선택시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해마다 변화되는 대입제도를 발 빠르게 안내해 자녀의 대학 진학 지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대입제도 및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올해는 고교학점제 및 선택과목 안내 책자를 참석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

김판윤 교장은 "수시로 변화하는 입학제도에 대한 설명과 대입에 대한 정보 등을 사전에 취득해 중3 자녀의 미래에 대해 부모님과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장은성기자

"교육지원청 횡령사건 엄정 조사해야"

전북교총연합회, 회계직원 횡령 의혹 철저 조사 요구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전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 횡령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명백히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27일 완주교육지원청 회계직원의 횡령 의혹이 드러나 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이 의혹은 일선 학교 원어민 강사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전북교총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매월 감사관실 홈페이지를 통해 청렴 소식지를 제공하는 등 청렴한 전북교육을 위시하는 도교육청의 신뢰도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라며, "회계직원의 개인적 일탈 문제로 치부될 수 없는 규모의 공금횡령,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 4대 비위로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명백히 발표해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종 회장은 "2021년 2월 완주교육지원청 종합감사 이후 해당 직원이 8개월 가까이 수억원에 이르는 공금 횡령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은 결재 시스템과 감사 시스템의 명백한 오류"라며 "횡령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내부조력자가 있는지 여부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회장은 "도교육청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후 감사결과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는 것이 최선의 도리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총 관계자는 "소식지 배부, 청렴 의무 연수, 청렴 구호 등의 단순한 방법만으로는 청렴을 이룩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우쳐 준 사건인 만큼 교육 현장에 더 이상의 비리가 존재할 수 없도록 철저하고 촘촘한 감사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도교육청은 확실하게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 교육을 위해 힘쓰는 교육 현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장은성 기자

"야당 대선 후보의 수시 폐지 수능 연 2회 실시, 위험한 발상"

이항근 교육감 출마예정자, 무책임한 교육공약 우려

이항근 교육감 출마예정자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대학입시를 단일화하자는 주장이 야당 대선 후보로부터 나왔다면서, 이는 수시전형을 폐지하고 연2회 수능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공교육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보면 수능 중심 대입제도의 폐해를 실감할 수 있다.

고3 2학기는 학교의 정기고사는 물론 출결조차 입시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교실 붕괴'라고 할 수 있는 우려스런 상황이 고3 교실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런 현실에서 수능이라는 국가 주도의 단일 평가로 대입을 결정한다면 교실 내 수업 다양성은 완전히 소멸될 수밖에 없다"면서 "1학년부터 EBS 문제집만을 학습하고 평가하는 문제 풀이식 수업을 무한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도 '연 2회 수능' 주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장한 표현에 불과하다. 시험 횟수가 증가해도 수험생의 심리적 불안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수능 2회 운영에 따른 부작용으로 교실 붕괴 현상을 더 빠르게 불러올 것" 또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 수험생 쏠림 현상이 심화돼 '대학 수학 능력을 갖춘 학생 선발'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우리나라 교육은 대입으로 교육의 모든 활동이 귀결되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다. 따라서 이번 주장은 유·초·중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대입을 위한 선행학습 열풍을 불러와 중등 교육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소수 정치인의 잘못된 공약으로 혼란 속으로 빠져든다면 이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장은성기자

"청소년을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

학생의 날 맞아… "시대 의식 발전 따라 시민역량 함양 교육"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인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민주주의·정치교육·노동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을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학생의 날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국과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학생들이 먼저 분연히 일어나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면서 "청소년들은 훈육과 통제의 대상이 아닌 우리 시대 '가장 젊은 시민'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차 대표는 청소년의회, 청소년 참여예산제 등의 정책을 통해 학교 민주주의를 확립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건강한 사회참여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정치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한 노동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동의 가치와 권리의식을 함양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늘날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의 시대 의식이 매우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면서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생의 날은 1929년 11월 3일 일제의 억압에 맞서 일어난 광주학생운동과 이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펼쳐진 학생들의 항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